

7.1일 정오표 - 이영진님, 엠마왓슨덕후님 감사합니다.

21p(띄어쓰기 - 맨 위에서 둘째 줄) : 우선공공 -> 우선 공공 .

27p(단순오타) - 밑에서 6번째 줄 2번 해설 - 이익을 축해야 한다 -> 추구해야

35p, 134p (화살표 표기 오타, 도식화 밑 부분)

수정 전 :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 -> 수정 후 : 운동량이 큰(↑) 광양자로

수정 전 : 장(↓)파장 -> 수정 후 : 단(↓)파장

35p(섬세한 설명 추가, 맨 위에서 네 번째 줄) 광양자의 운동량과 전자의 운동량의 운동량은 비례 관계라는

-> 광양자의 운동량과 전자 운동량의 교란 정도는 비례 관계라는

42p(기호 오타, 맨 위에서 다섯 번째 줄) A : 유대종은 죽는다 -> B : 유대종은 죽는다

58p(단순 오타 -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 생명이 존재하기 그렇다. -> 존재하기 어렵다.

63p(ㄱ~ㅁ 수정) - 타원 안에 칸에 있는 '예상 독자 설정'를 다음과 같이 수정

ㄱ : 문제 인식

ㄴ : 예상 독자 설정

ㄷ : 전개 방향 결정

ㄹ : 해결 방안 제시

ㅁ : 자료 조사

71p (문제 정보 부족) - ㄱ이 없습니다.

-> ㄱ : 두 번째 문단에 등장하는 ㉠모방

92p (숫자 오타) :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 3번 선지는 둘 다 없고요 -> 4번 선지는 둘 다 없고요.

100p (표현 수정, 맨 위에서 네 번째 줄) : 변화하지 -> 변화시키지 못하고

102p (조사 표기, 맨 마지막 줄) : 2번은 말은 -> 2번의 말은

108p (단순 오타, 지문의 마지막 문단 처음 지점) : 처음 -> 처음

109p (중복 표기) - 바로 두 개가 바로 다르기 -> 바로 두 개가 서로 다르기

116p (단순 오타, 9번 문제 관련 지문 맨 마지막 줄) 노줄 -> 노출

117p (띄어쓰기 수정, 11번 문제 관련 지문 밑에서 두 번째 줄) :비해2몰이 -> 비해 2몰이

119p (단순 오타, 13번 문제 발문(문두)를 볼 것) : 적절하지 적절 유무를 판단하시오. -> 적절 유무를 판단하시오 .

127p (6번 문항 관련 지문 첫째 줄 구두점을 침표 및 띄어쓰기를 수정) 미.추 -> 미, 추 // 것이외에 -> 것 이외의

131p (10번 문항 설명 중 맨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조사표기 수정) 지구의 달의 거리 -> 지구와 달의 거리

133p (페이지 맨 처음에서 세 번째 줄, 표기 수정) 줄었지요? -> 줄었지요?

140p (섬세한 설명으로 수정) : 8번 설명 관련

만약 3번 선지의 말처럼 ㉠가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라면, 단순히 이것은 '명제' 자체인 것입니다. 즉, '명제'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고 하여 우리는 이 책의 내용을 무의미하다(의미없는 명제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답은 X입니다!

-> 만약 3번 선지의 말처럼 ㉠가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라면, 이것은 지문의 설명처럼 의미 있는 명제입니다.'

즉, 선지 앞뒤의 개연성을 보면 쉽게 3번 선지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면 논리적 사태도 아닙니다.

나아가, 선지의 뒷부분처럼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적 사태를 다루었다할지라도 그것은 의미 있는 명제이지, 의미 없는 명제가 아닙니다.

만약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는 사태라고 볼 수 없기에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지요.

교로, 3번 선지의 정답은 x입니다!

(정오 제기는 아무도 하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글 관계가 짬짬해서, 서울대 철학과 학우들 중 전문가들의 설명을 통해 알게 된 팩트 위주의 결론입니다. 수능에 출제된 2012 수능 인문 비트겐슈타인 지문은 다소 오독의 여지가 강하며, 그렇기에 비트겐슈타인을 전공하셨던 서울대 철학과 교수님도 위 지문이 엄밀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150p (3번 문항 설명 중 세 번째 줄, 조사표기) : 문장에 처음인 -> 문장의 처음인

(4번 문항 지문 -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 논리 적인 -> 논리적인

160p (페이지 맨 첫 번째 줄, 띄어쓰기 수정 : 속력과 도 -> 속력과도)

- 165p - (마지막 줄, 표기 수정:느낌표와 온점이 함께 있음) 아닙니다!.. -> 아닙니다!
- 166p - (2014 수능 지문 두 번째 문단, 띄어쓰기 수정) 올려 -> 올려
 (2014 수능 지문 두 번째 문단 맨 마지막 줄, 띄어쓰기 수정) 돌 을 ->돌을
 (2014 수능 지문 네 번째 문단 셋째 줄, 표기 수정) 우기지고 -> 우거지고
- 169p - (2015 수능 지문 지문 첫 번째 줄, 온점을 침표로 수정) : 미.추 ->미, 추
- 171p - (2015 수능 화법 지문 학생2 대화 내용 중 온점 수정) : 며칠 전.. -> 며칠 전,
- 173p - (2015 수능 화법 지문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띄어쓰기 수정) : 있다는건 -> 있다는 건
- 174p - (2003 수능 지문 맨 마지막 문단 첫 번째 줄, 표기 수정) : 처음 -> 처음
- 178p - (2002 수능 (다) 지문 네 번째 줄, 온점을 침표로 수정) : 본질적 특성인데. -> 본질적 특성인데,
- 180p - (2014 수능 지문 두 번째 줄, 띄어쓰기 수정) : 불꽃색 을 -> 불꽃색을
 (2014 수능 지문 세 번째 줄, 띄어쓰기 수정) 이 에 -> 이에
- 181p - (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표기 수정) : 청청소년 -> 청소년
- 182p - (3번 문항이 잘못 나와 있습니다. 수정) : 3. 윗글르의 ‘승선교’와 <보기>의 옥천교에 대한 이해로 적절 유무 -> 3.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한 내용의 적절 유무를 판별하라.
- 183p - (5번 선지 관련 설명 수정, 문맥 상 이 해설도 상관은 없으나 엄밀하게 수정)
 5번 선지와 관련있는 보기는 (가)에서 등장하는 “일자리의 문제로 연금 보험료 체납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지문의 마지막 문단과 대응하며, 결국 일자리를 창출 관련 분야에 연금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가)의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5번 선지의 서술처럼 강제 가입을 완화한다면 오히려 더 체납이 늘겠지요?(개연성 추론) 결국 5번 선지는 답이 X입니다.(올바른 해결책이 아님)
 ->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강제 가입과 강제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즉, 강제 가입을 완화한다면 역선택이 오히려 심해지겠고, 노후를 대비한 강제 징수를 만약 실행하지 않는다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5번 선지를 읽어보면 강제 가입에 대한 문제이기에 우선 역선택이 발생 것입니다. 그럴 때 지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납입되는 보험료에 비해, 지급해야 할 보험료의 총액이 커지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므로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한편, 강제 가입의 완화의 결과로 체납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 가입이 완화되면, 주로 안정된 노후를 이미 확보한 사람들이 가입하지 않을 확률이 높으므로, 불안정한 노후를 지닌 이들이 가입한 이들이 금액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단, 체납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확정지을 수 없는 것은 고소득자의 체납도 '지금 현재'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이들이 가입 자체를 안한다면 체납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고소득자들의 체납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정부 정책의 측면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가입 강제성을 더 지니거나 당근 정책을 펼치면 될 것입니다.